

마약으로 병드는 사회

회사원·주부·택시기사·학생 등 다양계층 침투

염색제 이상 초래하는 치명적 약물도 확산

마약이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스며들고 있다. 일부 연예인이나 특정 계층 부류들의 탈선정도로 치부돼왔던 마약이 이제는 회사원, 주부, 택시기사, 학생 등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심지어는 경찰관이 히로봉 상습투여로 파면되는 사건도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7일 대검의 마약심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검찰에 적발된 마약사범은 모두 215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국내 마약류사범이 1만명을 넘어섰다는 검찰의 발표수치는 이미 옛날 통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마약은 빠르게 일상 속에 녹아들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인기가수 그룹인 '업타운'과 '드림큰 타이거'의 전·현직 멤버들이 마약복용 혐의로 검찰에 전격 구속됐다. 또 4월21일에는 마약에 손을 대 이미 철창신세를 지고 있는 아들과 딸, 사위에 이어 어머니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마약판매에 나섰다. 딸미를 붙잡힌 여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그런가하면 지난달 중순에는 대학가 테크노 바를 중심으로 초강력 환각제 물질을 투약한 뒤 환각 파티를 벌인 여대생 등 20대 여성들이 적발되기도 했고, 택시기사들이 야간 총알운전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 마약을 투여한 뒤 운전대를 잡는 일이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마약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우리나라가 이처럼 급속도로 물들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급격한 국제화와 개방화 추세로 인해 외국인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이 증가했고, 최근에는 인터넷

넷을 통해 주문, 우편, 택배 등으로 공급망도 다양해졌다. 또 가격도 점점 낮아져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투약사범 계층이 다양화되고 확산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왕성하게 일해야 할 20~4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87.2%를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 마약사범도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방법도 다양해져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우려할만한 점이다.

실제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마약류만도 LSD 코카인 헤로인 엑스터시 블락코카인 등으로 다양해졌고, 이중 초강력 환각물질인 'LSD'는 극소량을 투약해도 염색제 이상까지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물로 알려져 있다. 일명 '도리도리'로 불리는 엑스터시는 뇌 신경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투약 사범의 54%가 호기심 또는 유혹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러다가는 미국과

같이 마약천국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마약에 빠져 든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이거나 호기심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한순간의 선택은 자신의 삶을 헤아낼 수 없는 구렁텅이 속으로 몰고 간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 과세다 니함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런 사람이 몸과 말과 뜻으로 악행을 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사람은 잠깐이라도 빈틈이 없이 악행을 막고 선행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요." (집야합경)

자신의 행동이 경솔하고 사려깊지 못하면 그 결과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마약이 그렇다. 정부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마약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ia.com)



김용덕 (한양대 국제문화대학장)

너무도 보고 숲도 보고

그러나 문제는 교육받을 권리가 얼마나 균등하게 주어지는가에 달려있다. 과외로 인해 차별을 받게 된다면 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안정과 화합을 도모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한때는 과외 망국론이 대두되기도 했으며 정책적인 차원에서 늘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라 있었으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외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면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말단 지엽적으로 접근하면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병을 치료하는 데는 우선 급한대로 대증요법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병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근본적인(根本)의 처방이 필요하다. 과외의 발달을 수백에 달하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명한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

우리가 관심을 갖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과외 없이도 고부 혜택을 받는 교육환경이다. 고액파이가 필요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다. 공교육을 내실화 하지 않은 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고발하고 세금을 매긴다고 한들 그것은 일시 방편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투자를 과감하게 늘려서 과외 방지 않고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다. 나아가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생활에 구애받지 않고 금지를 갖고 떼먹이 살아갈 수 있는 기술과 개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우리 스스로 조성하는 일이다.

새만금 갯벌보전을 위한 한·일 공동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KFEM)·일본습지네트워크(JAWAN) 2000년 5월8일 / 울진/거제도 네트워



새만금 갯벌보전 한·일 민간 공동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과 일본의 대표적 습지보전 단체인 일본습지보전연대(JAWAN)는 8일 서울 안국동 철학

치매 유전자 첫 발견

김재섭·임정빈 교수팀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발표

치매를 비롯한 신경질환·소아간질병 등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이들 난치병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과학기술원 김재섭 교수와 서울대 임정빈 교수팀은 치매 등 신경질환과 태아의 기형 등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기능을 규명하고, 이를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 최신호에 발표했다. 10일 밝혔다.

춘투의 계절...산업현장 '긴장'

노동계가 5월말 총파업을 향한 투쟁일정에 돌입, 산업현장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 또는 민영화 문제와 맞물려 있는 철도, 통신, 금융, 자동차 등 국가 기간산업 노조들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태세를 과업이 이뤄질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20일까지 장외행위 결의 및 신고를 마친 뒤 29일부터 철야농성을 거쳐 6월1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위원회와 노사 대표들이 9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기는 했지만 의견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8일 머리를 맞댔으나 첫 공식만남이라는 의미로만 만족해야 했다. <선생자경>은 "고용주는 고용인을 대하되 힘에 알맞게 부리며, 음식과 급료를 적절히 지불해야 하며, 때에 따라 수고로움을 위로해 주어야 하며..." 등으로 고용주의 도리를 말하고 있다. 또 <시가지리얼방에경>에는 "고용인은 고용주를 위하여 일찍 일어나 그가 부르지 않도록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하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경전말승대로 노사 양측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와 시대변화에 맞는 변화된 의지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노인 12명중 1명 "가족으로부터 학대"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어버날 하루 전인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6대 도시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8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명이 가족들로부터 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노인 12명 가운데 1명은 가족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학대를 경험한 노인 중 42.7%는 '거의 매일 학대받는다'고 응답했고, 2~3개월에 한차례는 24.7%, 월 한두차례는 11.2%, 주 한차례 이하는 7.9%였다. 학대방법은 언어 및 심리적 학대가 93.9%였고, 방압과 경제적 착취, 신체적 폭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이유로는 경제적인 문제 39.5%, 성격차이 22.1%, 가해자의 오해 7%, 상호 이해부족 5.8%, 가해자의 자각지식 4.7% 순으로 꼽혔다. 그러나 노인 3명 중 2명은 가족들로부터 학대를 받더라도 '끝까지 참는다'고 응답하는 등 대부분 학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합경>은 "부모를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일생보처(一生補處)의 보살이 받는 과보와 동등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불효하는 자식들이 명심해야 할 경전말씀이다.

단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해탈에 이르는 가르침 !!!

티벳 '사지(死者)의 서(書)' 오디오 북 특별 할인 판매

행사기간: 2000년 5월 31일까지 (주문 판매에 한합니다)

이 오디오 북은, 티벳 '사자의 서'를 쉽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배경 음악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현대적인 언어로 녹음되어 있다. 단순히 듣는, 이 명상법은 죽음의 과정과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현상들을 미리 들려 줌으로써, 죽음의 상태에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와 주며, 올바른 자궁을 선택하여 환생하는 방법까지 알려 주고 있다. '오소 삶과 죽음의 과정을 위한 학교'의 비트만(Veetman)에 의해 만들어졌고, 전 세계 6개 국어로 번역 출간되어 있다.

배경 음악: 친미야(Chimaya) / 번역: 최희식 / 목소리: 정두석

CD(3장): 정가 50,000원 → 30,000원
TAPE(1시간 30분 테이프 2개): 정가 28,000원 → 18,000원

'바르도에 대한 오소의 강의' 테이프와 함께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테이프에서 오소는 바르도의 중요성, 바르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바르도 상태에서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죽음은 꿈의 끝이다." -오소-

90분, 5,000원

도서출판 **황금꽃** : 전화 02)711-4227,8 / 팩스 02)711-4229